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 축일
제36권 26호(다해) 2016년 5월 22일

[묵상]



삼
위
일
체
대
축
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시오" (요한14,11)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모두 다 내 것입니다.
성령은 내게서 들을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16,15)

"그날이 오면 당신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당신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14,20)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만물을 지으심으로
성삼위의 일치가 보존됩니다. 성삼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선물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의 친교는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를 누리게 됩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언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매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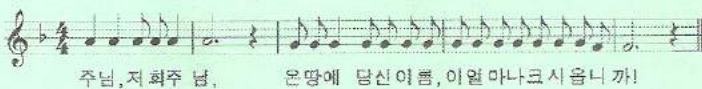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생)홍사동 베네딕도 & 이피아 아네스
주일 낮 미사	(연) 이정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현시영요셉, 고준희 제임스, 이용식 베드로, 박창진, 이용완 & 홍숙녀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 이인환 & 이두재 마리아 김학래 마티아 & 이어연 막달레나, 윤중선 헬레나 (생)박정미 클라라, 황윤재 베드로가정, 이용훈 안드레아, 최태훈 아오스딩, 석순영 아네스, 권하은 요세피나, 권바오로 & 세실리아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Proverbs) 8,22-31

화답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열
마나 크시옵니까!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제 2독서 로마 (Romans)5,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
서.○

복음 요한 (John)16,12-15

영성제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2. 문호 개방기의 교회(1882~1911년)

2-1. 교회의 성장

한편 1886년 한불 조약이 체결된 이후 신앙의 자유에 대한
독인의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교회는 제물포(1883년)와 원
산(1887년), 부산(1889년) 등 개항장에 본당을 창설해서 선
교사를 파견하였다. 이와 동시에 1889년에는 개항장뿐 아니
라 대구, 전주 등 조선의 전통적인 도회에도 본당을 세웠고,
1892년에는 서울의 두 번째 본당인 약현(藥峴, 지금의 중림
동) 성당이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로 건축되었다. 1898년
서울 중현(鍾峴, 지금의 명동)에는 주교좌 성당이 완공되어
조선의 선교 자유를 상징해 주었다.

개항 후 입국한 선교사들은 조선인 신학생을 선발하여 말레
이 반도 페낭(Penang)에 설치된 신학교에 파견하였다. 당시
의 교회는 1885년 원주 부영골(현재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금평리)에 예수 성심 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887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해서, 중등 교육 단계인 3년 교육 과정의
소신학교(小神學校)와 고등 교육 단계인 2년 과정의 철학과,
3년 과정의 신학과로,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한 조선인들을 성
직자로 서품하였다. 개항기에 이르러 예수 성심 신학교는 조
선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새로운 요람이 되었다. 이 신학교에
서 1896년 이후 조선인 성직자들이 다시 배출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주교 1명과 프랑스인 신부 39명 그리
고 조선인 사제 12명이 선교 활동을 하였다. 1910년에 프랑
스인 선교사 신부는 46인으로, 조선인 사제가 15명으로 늘어
났다.

한편, 1888년에는 프랑스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한
국에 진출하여 교아원과 양로원, 시약소 그리고 새롭게 세워
진 여러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본
당에 파견되어 본당 신부를 도와서 직접 선교하게 되었다. 또
한 1908년에는 뮌헨 주교의 초청으로 독일 오틀리엔에 모원
을 두고 있는 ‘베네딕도 수도회’가 조선에 진출하였다. 이 남
녀 수도자들의 봉사로 한국 교회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
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05	105	105
봉헌	270	270	269
성체	291	291	275
파견	236	236	236

하느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랑의 원동력,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호 관계가 풍요로워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공동체 삶을 살도록 허상과 실상을 분별하여 실상을 선택하고 마음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새기면서 사는 삶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살아나가기에 부족한 존재임을 아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 당신의 꿈을 인간들에게 살게 해주십니다.

표현하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 표현이고,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삶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확립하고 이 사랑을 자각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관(다섯 개의 감각기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을 지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접하면서 관상 기도를 할 때, 예수님과 하느님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으로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몸과 마음과 영성의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베푸신 배려입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해도 죄가 계속 떠오르고 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도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만레사라는 작은 마을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배려와 사랑을 체험하고 죄의식은 악마의 유혹임을 하느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배려이고 하느님의 꿈이었음을

예수회 사제인 ‘윌리엄 베리’는 하느님의 꿈이 인간의 진정한 꿈과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꿈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느님의 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가족 구성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파라고 확신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녀, 용서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꿈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성삼위의 하느님을 먼저 만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요한 16,15)

◆ 김창훈 바오로 신부 / 영신 수련 담당

성인 말씀

영혼들이 자유로이 은총에 자신을 열지 않으면, 은총이 영혼들 안에서 그 활동을 완수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마리아는 인간들이 당신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면 어머니로서 완전하게 행동하실 수 없다.

- 성에디트 슈타인 -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유민상 안토니오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한경숙 안나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삼위일체 대 축일

교회는 성령 강림
대 축일 다음주일을
삼위일체 대 축일로 지내

고 있다.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마태28,19)에 따라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다.
삼위일체 대 축일이 로마 전례력에 들어온 것은 14세기 요한 22세 교황 때였다.

◆ 제13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오늘 주일(22일) 11:00am~5:00pm

- 미사 시간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10시 미사와 통합

◆ 교리반 예비자 모집

- 모집 및 전교 기간 : 4월3일 ~ 5월 22일
- 환영식 : 2016. 5월 29일 11시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6월2일~12월 8일, 매주 목요일 8:10 ~ 9:10PM
- 세례식 : 2016. 12.11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2016-2017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졸업생) ~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 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5월31일까지 마감

◆ 2016년 백삼위 성당 '영성 피정'

- 주제: 신앙 성숙과 쇄신을 위한 영성피정
- 강사: 강 요셉 신부 (구속주회)
- 대상: 전 신자
- 날짜: 6월2일(목)3일(금): 오후7시~10시30분
4일(토): 오후6시~10시30분,
(고해성사:오전10시~오후6시까지, 각자 원하는 시간에)
5일(주일):오후1시~6시
- 참가비 : \$30, 신청마감 : 5월22일
- ※9월 11일에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견진성사 대상자의 교리는 영성피정으로 합니다.
견진을 원하시는 분은 영성피정을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관 : 성령기도회
- 문의 : 강 아네스 (310)780-0369

◆ 주일학교 여름캠프 등록안내

- 날짜: 7월 8일 (금) ~ 7월 10일 (주일)
- 등록기간: 5월 22일 (주일)까지, 35명 선착순
- 참가비: \$60 (등록기간 후 \$85)

◆ 본당 주일학교 교장 및 교사초빙안내

우리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주일학교 교장과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어를 꼭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주일(22일)은 본당 체육대회, 29일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두 주간 주일학교, 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22일(주일) *체육대회
- 5월29일(주일) *Memorial Day : 친교 자리 없음
* 주일학교 : 주일학교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미순 강순복 강인모 권오상 권태만 금영도 김대우 김상규 김상기 김선영 김성원 김옥보 김인성 김일선 김재희 김정엽 김정웅 김진우 나경흠 박광자 박혜정 안재만 안태갑 이미예 이우성 이재철 이정분 이태옥 이효세 정남형 정병훈 정훈모 황지영 송마이클 한길선례	성전헌금	장미순 강인모 권오상 권태만 금영도 김대우 김상기 김재희 김정엽 나경흠 박광자 안재만 안태갑 이미예 이우성 이정분 이효세 정남형 정훈모 황지영 송마이클 한길선례
	합계:\$3,495		합계 : \$1,785
주일미사헌금 :\$2,346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SAT II 한국어 시험 준비반 여름 특강
일시 : 6월18일 ~8월7일 (7월 2일 제외)
매주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
신청마감 : 6월 12일 (주일)
2. 백삼위 한국학교 2016-17년도 1학기 등록 접수
6월5일 - 6월 19일까지 접수시 20% 할인혜택
3. 한국학교 2학기말 시험 - 6월 5일
- 시상식 : 6월 19일 종업식 중.
4. 2015-16년도 한국학교 종업식
장소 : 강당
일시 : 6월 19일 오후 1시30분 ~ 3시
문의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남가주 소식

◆제 22차 남가주 선택주말(Choice Weekend)

- 대상 : 24~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남녀
- 일시 : 8월 12일(금) ~14일(주일)오후
- 참가비 : \$300(반액은 본당지원 함)
- 신청마감 : 6월 25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신호진 구네군다(213) 503-7909

◆남가주 제 28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강사 : 장요셉 신부(구속주회)
- 일시 : 2016.5.26(목) 오후 6:00~29일(주일)오후4시
- 참가비 : \$150 (숙박비 포함)
- 신청마감 : 5월 8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각본당 기도회장, 또는 한테레사(714) 345-4791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 수련

- 지도 : 예수회 최준열 다미아노 수사
- 일시 : 2016.6.4~2017년 3월초,매주 토2시~5시pm
- 장소 :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문의 : 정 도로테아(818)321-9505
장 켄마 (224)305-4443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 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 31/2016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윤미애 안나 560-712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박명순 안나 968-760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 제14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청팀 - 토렌스 동, 서, 남

백팀 - 토렌스 북, 하버칼슨, PV

*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키순으로 청백 나눈다.

진행 일정

오전

11:00 ~ 11:25 * 입장식 * 맨손체조 - 전 신자

11:25 ~ 11:45 * 개회식

11:50 ~ 12:50 * 중식 - 소공동체별

식사 전 기도 - 신부님

오후

12:50 ~ 1:20* 피구게임 각 팀 각각 20명씩 총 40명
남녀 제한 없음

1:20 ~ 1:35 * 단체게임(발목 풍선터뜨리기)

인원제한 없음 / 주일학교, 한국학교

1:35 ~ 1:55 * 엉덩이 뒤에 풍선 달고 터뜨리기

각 팀 각각 5명씩 총 10명 / 남녀 제한 없음

(요셉, 안나회, 할아버지 할머니)

1:55 ~ 2:30 * 축구게임 (심판-이재정 요한)

각 팀 각각 6명씩 총 12명 / 남녀 제한 없음

(주일학교),(성인)

전, 후반 15분씩 (5분 휴식)

2:30 ~ 3:00*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진행석에 있음)

각 팀 각각 5명씩/(주일학교) 3전 2승제.

3:00 ~ 3:20 * 풍선 달고 터뜨리기

각 팀 각각 5명씩 총 10명 / 남녀 제한 없음

(요셉, 안나회, 할아버지 할머니)

*경과 시간과 여건에 따라 사회자의 재량에

의해 "짜깁기"게임 진행 가능. "신발 멀리 던지기"

3:20 ~ 3:50 * 이어달리기 주일학교 각각 6명씩 총 12명,

자매님들 각각 6명 총12명, 남,여 각각 6명 총12명

1.경주) 자매님들 - 각6명씩(에어볼 타고 달리기)

2.계주) 주일학교- 각 6명씩

3.계주) 남,여자 - 각 명씩(6명)

4:00 ~ 4:30 * 줄다리기

각 팀 전체 / 남녀 구분없이 인원제한 없음.

4:40 ~ 5:00 *경품추첨 신부님, 수녀님, 총회장님등

5:00 ~ 5:15 * 폐회식, 마침 기도 : 신부님

5:15 ~ 6:00 * 주변정리 :전 신자

[길을 찾는 그대에게]

짜증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자연히 술, 담배도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짜증이 없어질까요?

☞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짜증이 나는 것은 모든 삶에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짜증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짜증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짜증이 나게 하는 상황과 그런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단주 모임인 AA 회원들이 바치는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주 모임에서의 기도라면, "술을 끊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느님, 제가 저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행하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소서."

많은 경우 우리는 아무리 화내고,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놓칩니다. AA의 기도에서처럼 하느님께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리상식]

감실이란 무엇인가요?

☞ 감실이란 성당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셔둔 곳입니다. 감실은 성당 안, 신자들이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마련하며, 빨간색의 작은 램프(성체등)로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음을 표시합니다. 신자들은 감실 앞을 지나갈 때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깊이 절을 합니다. 사제가 미사 후에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는 이유는 성당에 올 수 없는 '병자'를 방문하여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함이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흠송하기 위해서입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찾은 하바룩 예언자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패망이라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살았던 12소 예언자의 하나인 하바룩 예언자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바룩은 당시 유다 왕국이 처한 역사적 현실을 아파하며 예언활동을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희망하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하느님이 극적으로 개입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바룩은 하느님께 무엇이든 탄원하였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하바룩서1,2-4

“하느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이렇게 하바룩의 예언은 항의조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바룩이 의심의 인물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과 신뢰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지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르는 유다 백성들도 고통을 받는 모순적인 현실은 하바룩에게 항상 새로운 의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 하바룩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하바룩서1,5-11

“당신께서는 눈이 밝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를 집어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 하바룩은 하느님께서 왜 악인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고 배신자들을 못 본체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그의 질문과 회의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심각하게 고려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바룩은 인내를 갖고 그 해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느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해답은 하바룩의 오랜 의문을 말끔히 씻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하바룩서3,1-19

하느님의 답변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니 기다려야 합니다. 하바룩은 이스라엘이 절망과 고뇌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충성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조리와 부정이 그들을 삼키려 해도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가 실현됩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참으로 ()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건디어 낼 수 없다. 저승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린 그자는 ()과 같이 ()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이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들인다.

(하바룩서 2,5)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에서 ()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로마 1,17)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세상의 모든 구원투수

야구를 할 때 먼저 던지고 있는 투수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그 투수를 대신하여 던지는 투수를 구원투수라 한답니다. 팀의 호전을 위해 투입됐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기대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의 무게는 어떠한 것일까 생각합니다. 세상엔 이토록 고독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영 아네스-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발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5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철/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 (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원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레이크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A: #FDR1124 / CBB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MAIN OFFICE (FD1648)	South Bay Office (FD2253)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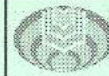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